신간

●부시크래프트 캠핑교과서(가와구치 타쿠저·신찬 옮김 | 보누스)



'부시크래프트'는 부시(숲)과 크래프트(기술)의 합성어. 숲과 들판에서 최소한의 장비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쉼터를 마련하고, 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캠핑이다. 오토캠핑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드디어 부시크래프트에 도전할 때다. 이 책에는 1세대 부시크래프트 캠퍼인 저자의 20년 경험과 기술이 담겨있다. 부시크래프트를 시작하려는 초보자, 제대로 부시크래프트를 경험해보고 싶은 캠퍼들을 위한 완벽 가이드북이다.

●놀면서 똑똑해지는 두뇌발달놀이백과(권정아·전예름 저 | 청림life)



과학교육 전문가 엄마들이 추천하는 85가지의 놀이를 수록했다. '엄마는 편하게, 아이는 신나게!'가 모토다. 꼬물꼬물 6개월 아기부터 5세 어린이까지 다양한 주제로 놀면서 건강하고 똑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별로 구성했다. 뇌 영역별 놀이와 연계된 나들이 코스 123개, 주어진 놀이를 더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팁과 대체 재료도 소개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양형모의 공소남닷컴 | 비올리스트 김남중의 '오늘은 비, 올라'

비 온다고요? 아니요, 비올라라고요

"악기 모르는 이에게 쉽게 다가가
연극·무용 융복합 음악극 탄생
땀 냄새 나는 클래식 공연 준비"



비올리스트 김남중에게는 늘 '사랑하는', '따뜻한', '훈훈한'과 같은 형용사가 따라 다닌다.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음악감독, 지휘자, 공연기획자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는 언젠가 클래식 융복합공연을 장기 공연하는 꿈도 갖고 있다. 사진제공 | jeremyvisuals

서울대 음대 졸업 후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유학. 2005년부터 9년 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 미국 뉴욕 카네기홀(2014), 베를린 필하모닉홀(2015), 러시아 글린카콘서트홀(2018), 미국 템플대학(2019) 등 전 세계 유명 콘서트홀에서 연주. 비올리스트로서는 최초로 미국 뉴욕 UN본부 총회의장에서 독주연주회를 가졌으며, UN 국제평화기여 예술가상 수상.

비올리스트 김남중(41)은 클래식 연주자로서 그 누구 못지않게 화려하고 두터운 이력을 쌓았다. 솔리스트로 전향한 후에는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음악감독, 지휘자, 공연기획자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최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융복합공연예술축제 '2019 파다프(PADAF·7/2~6)'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관객에게 선보인 '오늘은 비, 올라'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경험의 총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몇 번의 인터뷰 고사와 연기 끝에 김남중을 스포츠동아 인터뷰룸에서 만날 수 있었다.

-최근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수상 얘기인가? 파다프로부터 최우수 음악상을 받았다. 내심 연기상을 노렸는데(웃음). 사실 기대하지 않았다. 너무 긴장했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무대였다."

-수상작이자 개막작인 작품의 타이틀이 '오늘은 비, 올라(연출 김예나·조연출 차승혜)'였다. 무슨 의미인가.

"대학 시절 소개팅 같은 데 나가서 '비올라를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올라요? 비가 온다고요?'하는 농담을 듣곤 했다. 그때는 참 듣기 싫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올라라는 악기를 잘 모르더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이고, 이 작품은 비올라도 주인공이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붙여보았다."

-'오늘은 비, 올라'는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었다. 보통은 피아노 한 대가 비올라 연주의 뒷받침을 하는데 이번엔 아코디언 연주자(알렉산더 셰이킨), 연극배우(김한), 무용수(오주원), 타악기 연주자(김민석)가 총출동했다.

"몇 년 전에 파다프 공연을 봤는데 다양한 장르의 예술분야가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모습이 신선하고 새로웠다. 나도 저들과 어우러져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클래식 음악에 연극, 무용과 같은 요소들을 '동등하게' 융합시킨 작품을 고민했고, 결국 '오늘은 비, 올라'가 나오게 됐다. 연극이 있는 비올라 연주회냐, 비올라 연주가 있는 연극이냐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난 그냥 음악극이라고 생각한다."

-클래식 연주자와 대학로는 어쩐지 썩 어울리는 조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 공연이 끝나고 겁이 더럭 났다. 대학로가 너무 좋아서(웃음). 클래식 콘서트를 준비하는 것과 정말 많이 다르더라. 땀 냄새라고 해야 할지. 소품 하나, 조명 하나까지 다 손길이 가야했다. 사서 한 고생이지만 너무 좋아서 큰일이다. 하하! 이 공연을 한 번만 하기는 서운하고, 더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 요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다."

김남중에게는 늘 '따뜻한 예술가', '봉사하는 연주자', '아름다운 삶'이란 수식어가 강력하게 접착되어 있다. 그는 한국루게릭병협회, 메신저인터내셔널, 함께하는재단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으며 장애인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연주회를 이어가고 있다.

"몇 년 전 학생들이 나무통 울리는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맹학교를 찾아가 연주를 한 적이 있다. 학생들이 온 몸의 세포를 곤두세워서 내 소리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큰 무대에서도 떨지 않는 체질인데 이날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연주를 했고,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앓았다."

김남중이 묵직한 비올라를 어깨 위에 올리고 현 위에 활을 얹었다. 영화 시네마천국의 테마곡이 흘러나왔다. 마음은 물론 몸까지 훈훈해지는 소리. 그날도 이런 소리였을까. 비올라가, 김남중이 내게 말을 건네 오고 있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반선경, 한 여름 밤의 바이올린 선율 속으로

8월27일 예술의전당 귀국독주회
베토벤·슈트라우스 명곡들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반선경

빛나는 예술성,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반선경(34)의 귀국독주회가 8월 27일 오후 8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다.

반선경은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조기졸업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입학해 예술사, 전문사 과정을 조기졸업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석사 및 최고연주자 학위를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김남윤과 정준수, 해외에서는 아키 쇼코를 사사했다.

15세에 금호 영 아티스트 콘서트로 데뷔해 일찌감치 음악적 두각을 나타냈으며 미국 모스 리사이틀홀과 수들러홀, 국내에서는 금호아트홀,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등에서 독주회를 열어 전문 연주자로서도 이름을 알렸다. 이원문화재단, 젊은이의 음악제, 성남문화재단, 워싱턴-한미동맹 60주년 음악회 등의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KBS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아베끄 스트링콰르텟, 라스앙상블 단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초빙 대우교수)와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해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8번 G장조 Op.30 No.3', 차이코프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Souvenir d´un Lieu Cher Op.42)',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E플랫 장조 Op.18'을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박로한이 반선경과 호흡을 맞춘다. 양형모 기자

생활속 치유황토방 국내최초 이동식구들황토방

고소득, 역량있는 전국 지사장 모집

www.ondol.net
NAVER 안병연 구들명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노화예방
건강과 힐링을 생각하신다면
기존황토방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저렴한연료 친환경연료로
군불때는 차별화된
"치유" 구들 황토방
정원, 자투리 공간, 사찰,
암자, 농막, 전원주택,
힐링타운, 팬션, 캠핑장,
요양원 경로당 등등...

무주 캠핑농원 등에서 황토 온돌방 숙박사업 성공적 운영중!

창원지사, 남원지사, 김해지사, 임실지사, 안동지사, 장수지사, 영주지사 계약체결!
조달청통해 학교납품, 합천 적중, 진주 동부, 산청 삼장, 고성이당 설치
고성 월평, 용인 양지 설치예정!
하동 옥종, 산청 금서, 진주 명석 구들시공, 산청 차황, 산청 신안,
함양 행복마을 구들시공 예정
영천, 순천, 밀양, 함양, 달성 지사 협의 중!

현시대에 가장 핫한 블루오션 사업으로
고소득도 올리면서 보람있는 사업파트너 초빙중!!
진주 055-754-0027 합천 010-5555-2560 원주 010-8477-2023
완주 010-3653-1916 무주 010-5127-7599 남원 010-3280-0119
창원, 문경, 고성, 김해, 임실, 안동, 장수, 영주(지사 준비중)

개운하게 푹자고, 원적외선 팡팡!! 체온상승효과 지치고 찌든 몸 가뿐하고 가볍게!!
30년 구들장인, 수천건 구들 시공, 한국기네스북 국내최대 구들방 공인인증
중국, 일본, 국내특허 13개 등록, 복잡하고 어려운 전통구들방식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시공방식 개발

(주)안병연 구들명가 상담문의 055-973-4689

전국지역별 지사 모집중
(판매, 시공일체)